

【8】 고장을 빚낸 인물과 성씨분포

인구수와 성씨는 반듯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과 일본만해도 그렇고 일본 성씨는 약 12만개정도 추산된다고 한다. 이렇게 성씨가 천국이 된 것은 명치유신 이후 호적이 생기고 부터라고 한다. 목적은 증병 때문이라고 한다. 증병 때문에 성씨를 얻고자 서두르다보니 주변 환경이나 직업이 성씨가 된 예도 많다고 한다. 예를 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밭한가운데 있어서 田中(밭전, 가운데중) 개천옆 버드나무 옆에 있다고해 柳川(유천) 즉 냇가의 버드나무를 합성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예부터 족보를 중히 여기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자기의 뿌리를 중시해 왔다. 그럼으로 성씨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대소가의 연을 맺어온 터다. 우리 옛 온양의 주인들도 성씨에 대한 관심이 유별나기로는 다를 바 없다.

그러나 6·25전란중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일가 친척이 없이) 일부 어린이들이 자라서 호적을 갖으려고하나 성도 이름도 몰라 애를 먹게 된다. 이런 때 즈음 수용시설의 대표나 자선 사업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지방의 이름을 본관으로 정하여 성씨를 정해 주곤 하였다고 한다. 이런 인연으로하여 우리 온양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이 더러 생기게 된바 1980년대 온양의 동별 성씨 분포를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1. 성씨

(1) 온양 원거성씨

① 온양 정씨

시조인 정보천은 호부상서를 지냈고 익호는 정희공이다. 후손 정응휴는 고려 충숙왕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감찰어사가 되었다. 그는 후에 중시조가 되었다. 응휴의 9대 손이 정탁(헌납)이고 탁의 아들이 문과를 급제하여 우의정을 지낸 정순명이다. 그는 을사사화를 일으켰기로 상신 벼슬을 삭탈 당하였다. 순명의 아들인 복창 정렴은 벼슬이 구천 현감으로 그치고 서원에 제향되었다. 그는 도술로 한국도교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로서 만년에 도술 단련과 방랑으로 여생을 살았다. 정렴의 아우 정작(사평) 역시 이인이 되어 수련하였으며 정렴의 사촌인 정초(교리)도 정학단술로 세상을 등짐으로써 온양정씨의 이인인맥을 이었다. 초의 아들이 해주에 은거불사하였던 정지승(시인), 지승의 아들이 정희(사계문인), 희의 아들이 문과에 급제하여 현종조에 예조판서를 지낸 대문장 정두경이다. 두경의 재종제인 뇌경은 문과에 급제하여 필선이 되었다. 두경의 아우가 정인경(승지), 정기안(대사간)은 정렴의 5세 손, 기안의 아들이 홍경래의 난에 유공했던 명어사 정만석(문과 급제, 우의정, 청백리)이다. 정민시(문과 급제, 이조판서)는 정순명의 9세 손, 민시의 조카 정상우는 문과에 급제하여 판돈영부사를, 염의 7세 손 창성은 문과에 급제하여 판돈영부사와 청절공을, 창성의 아우 창순은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와 제학을 지냈다.

② 온양 방씨

시조는 중국 산둥 사람으로 나당 동맹의 문화사절로 신라에 와서 혁명적인 유학체계 학문

작업을 설총과 더불어 해낸 방지(한림학사)의 6세 손으로 고려 개국 때 군공이 많았던 방운(좌복사)이다. 후손으로 방중탁(정승), 방휴(명장), 방유(평장사), 방행(대호군), 방희진(대제학), 방우선(정당문학), 방서(판도판서), 방신우(원나라 평장사), 방신제 등이 고려조에 유수한 명맥을 이었다. 방신제가 중국 소주에 살면서 퍼뜨린 온양 방씨의 후손 중에 6세 손으로 중국 유학사의 백미인 거학 정학선생 방효유(한림학사, 박사)가 있다. 방운의 후손으로 평장사자선의 후예들이 분파 하였다. 서가 판서로서 일파를 이루고 그 아들인 온휘는 온천군으로 봉하여 졌다. 그 후 중지가 사정으로 일파를 이루고 방걸이 호장으로 일파를 이루었으며, 방희우가 군기사 소윤으로 일파를 이루었다. 조선조에 들어 방유녕, 방우고(의병장), 방웅(의병장), 방태홍(부사, 공신), 방효함(지중추부사), 방시용(시종원부경) 등을 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방윤명(서예), 방천용(서), 방한익(서), 방건홍(서), 방무길(서, 화) 등 서화가 인맥을 이었다.

③ 현달하지 못한 까닭인지, 시조의 이름이나 파계도 없이 본관만 나온 성씨는 다음과 같다.
 이씨, 윤씨, 홍씨, 오씨, 장씨, 송씨, 노씨, 백씨, 현씨, 노씨, 온씨, 김씨, 최씨, 신씨, 강씨, 서씨, 임씨, 정씨, 강씨, 문씨, 육씨, 천씨, 박씨, 유씨, 심씨, 성씨, 나씨, 맹씨, 전씨, 봉씨, 방씨 등이다.

④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에 수록된 姓氏
 ‘여지’에 의하면, 온양군에는 정씨, 이씨, 방씨, 강씨, 윤씨 등이 있고, ‘여도’에 의하면 이 밖에 맹씨, 남씨, 유씨 등이 추가되어 있다.

<원거성씨 거주 조사 일람표>

(1976년 10월 1일 현재)

본관별	아산																			
성씨	정	서	문	전	남	노	구	고	임	이	강	김	양	최	박	사	오	천	한	정
가구수	1	2	1	2	3	1	1	1	1	38	3	10	1	8	6	1	5	1	3	1

본관별	아산										온양										금성	인주
성씨	장	조	현	양	차	주	백	장	황	조	정	이	김	최	박	방	장	주	황	정	나	이
가구수	2	1	1	2	2	2	1	3	4	1	22	5	4	2	1	71	1	2	2	4	1	2

※ 자료 : 아산군 내무과

(2) 내주 성씨

원거 성씨 이외의 타지방에서 온양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성씨들을 본관별 거주 가구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6년 10월 1일 현재)

성씨	유				매	원		조			우	유			
본관	사계	창원	무안	부안	청주	원주	전주	창녕	창원	순창	단양	홍양	문화	진주	풍산
가구수	38	12	5	5	1	31	1	32	3	1	22	12	53	16	1

성씨	유					정									
본관	성산	안성	충주	백주	홍남	경주	진주	광주	청주	봉화	해주	해평	동래	오산	연일
가구수	1	1	1	1	1	47	25	2	1	2	9	7	82	1	45

성씨	정						서								
본관	함평	공산	하동	나주	백주	창녕	대구	남양	달성	부여	이천	서원	춘천	연산	연일
가구수	8	1	19	5	1	1	5	2	78	4	4	1	6	1	1

성씨	공	문					전			나			남		
본관	풍위	남양	남평	해주	해평	평남	담양	하음	대흥	나주	결성	안정	咸 _千 乾	고성	영양
가구수	2	2	38	3	3	1	44	2	1	9	2	3	2	6	1

성씨	남	노						경	계	곽			구		
본관	선녕	장연	광주	풍천	교하	광주	경주	경주	순창	선산	현풍	청주	능성	결성	해주
가구수	40	1	6	6	15	4	1	1	2	1	11	17	19	2	1

성씨	구			고						길					갈
본관	진성	경주	능주	개성	표택	청주	제주	정주	횡성	정산	영변	선산	청주	전의	대구
가구수	2	1	2	1	1	2	49	3	1	2	2	5	1	1	2

성씨	권	사	강			임									
본관	안동	개성	신천	곡산	남양	나주	경주	부안	평택	평강	김해	진주	보성	이천	위진
가구수	54	1	12	2	6	41	4	23	20	1	3	1	1	1	2

성씨	임	황보	인	마		온	노	설	승	이					
본관	성진	영천	교동	개성	옥천	금구	개성	옥천	연일	경주	진주	덕수	원주	수원	전주
가구수	1	3	1	1	2	3	1	3	2	297	4	123	2	1	542

성씨	이														
본관	순천	강진	수안	개성	예안	정주	직산	진성	용인	풍천	태안	공주	연안	청주	전의
가구수	2	3	10	1	9	7	1	17	56	1	20	6	20	43	22

성씨	이														
본관	영천	감강	진실	성주	울산	미상	협천	우봉	완산	안평	용궁	교하	단양	평창	안산
가구수	4	1	1	9	5	2	8	6	5	3	1	1	8	6	1

성씨	이														
본관	성안	진안	정선	고비	강계	성양	반남	고부	용산	안성	여주	부평	평산	풍덕	고성
가구수	1	1	1	1	1	2	4	2	1	1	1	1	5	4	7

성씨	이														강
본관	신평	한산	양성	성평	고구	벽진	공산	청안	사천	응평	부안	해주	고경	여주	김해
가구수	18	71	6	17	1	3	10	1	1	4	1	1	1	17	1

성씨	강		배								전	엽	신		금
본관	진주	신주	정주	경주	성주	홍해	경천	곤양	김해	대구	문경	경주	경산	영월	봉학
가구수	186	2	2	2	8	2	1	1	5	1	5	2	3	4	1

성씨	여	김													
본관	성양	김해	경주	안동	광산	청풍	진주	나주	덕수	삼보	언양	영산	원주	의성	선산
가구수	7	560	358	97	73	17	6	13	24	5	56	2	1	29	10

성씨	김														
본관	수원	전주	금녕	청도	순천	상산	월성	수안	강릉	문성	양주	예안	해평	남양	경광
가구수	15	19	56	6	6	10	4	2	14	4	4	5	1	2	4

성씨	김														
본관	계림	정주	직산	분성	용강	희천	울산	의성	밀양	교하	천안	설성	풍천	남원	태안
가구수	2	1	1	2	3	1	1	1	2	2	1	1	1	1	1

성씨	김														
본관	공주	대구	方壘 善	능주	창원	성주	楊木辰	함창	연안	경천	청주	충주	영해	영천	혜성
가구수	2	2	1	1	3	2	1	1	24	4	9	5	1	1	1

성씨	金	최													
본관	미상	탐진	청송	삭령	홍해	해주	진양	동천	화천	수성	강원	강화	화순	광주	김해
가구수	3	1	1	1	1	23	2	2	2	3	1	2	1	171	1

성씨	최											박			
본관	나주	수원	전주	강진	월성	강릉	양주	경주	청주	충주	영주	고경	평산	함양	반남
가구수	2	2	53	1	2	12	2	1	1	2	68	1	2	8	14

성씨	박														반
본관	단양	울산	청주	충주	영해	밀양	순천	경천	우봉	무안	면천	춘천	탐진	청송	경주
가구수	1	5	2	4	12	484	18	3	2	6	1	2	1	2	1

성씨	석		추		양	의	정	장	편				광	진	
본관	경주	충주	나주	경주	청주	함평	충주	온주	초계	절강	정주	경주	진주	남원	대원
가구수	4	3	2	2	7	3	6	2	1	1	1	5	3	1	1

성씨	탁	위	신	사	명		오							지	
본관	광산	장흥	거창	청주	서촉	죽산	보성	초계	해주	거창	실성	동북	홍양	충주	청주
가구수	1	2	4	7	1	1	1	1	79	1	20	5	3	37	2

성씨	함	천				한				염		복		진	
본관	강릉	여양	영양	장진	청주	청주	청도	평산	전주	경주	파주	면천	여양	홍덕	강릉
가구수	9	25	4	1	1	139	4	3	3	11	1	6	12	1	1

성씨	진		허		성	엄	정				방				
본관	삼척	반성	양천	나주	창녕	영월	나주	곤해	밀양	하동	밀양	창성	나주	경주	청주
가구수	1	1	29	2	31	20	22	1	1	6	9	3	1	2	1

성씨	방	진								하		민	연	주	
본관	탐진	천안	경성	전주	나주	옥천	안동	밀양	시선	진주	진양	여흥	곡산	과계	경주
가구수	1	32	1	3	1	1	15	1	6	17	1	23	12	10	6

성씨	신			안						임	심			장	
본관	평산	고경	초계	순흥	강진	죽산	순안	광주	탐진	풍천	청송	풍산	충주	인동	나주
가구수	85	12	29	47	1	8	1	1	1	39	37	4	2	148	1

성씨	장								손						
본관	흥덕	창녕	옥산	울진	안동	단양	덕수	순흥	밀양	평해	연천	청주	경주	안동	풍해
가구수	3	1	1	1	7	6	2	1	18	8	1	1	5	1	2

성씨	채		변					조							
본관	평강	인천	초계	청주	밀양	안동	경남	함양	풍양	백천	한양	금청	양주	평양	성안
가구수	31	1	4	1	3	2	1	5	98	44	78	4	20	1	7

성씨	현				홍		양				차	주			
본관	성주	연주	창원	정주	남양	풍산	남원	청주	남양	나주	연안	밀양	연안	능성	신안
가구수	50	4	1	2	83	8	48	3	3	2	17	1	1	9	5

성씨	주				백				윤						송
본관	경주	나주	여주	연흥	영천	수원	충주	홍천	파평	전원	해평	해주	남원	신평	사진
가구수	5	1	1	1	1	61	1	1	142	2	18	1	1	1	18

성씨	송					유							변	노
본관	여산	회덕	충주	진천	문화	경주	강릉	과계	백천	김해	강영	충주	원주	함평
가구수	49	15	1	11	1	1	23	1	6	1	1	3	6	18

2. 인물

온양과 관련된 인물의 기준은 일러두기에서도 말했듯이 생존하는 인물은 제외하였고 옛 문헌에 나타나는 인물 기록을 수록하였다. 다음에 기술한 인물들은 옛 온양군 시절 조선환여승람에 기록된 인물로서 옛 온양군은 현재의 온양, 탕정, 배방, 송악 등이 통합된 행정 구역이었음으로 예를 들어 현재 배방면 중리의 맹사성등의 인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조선환여승람에 기록된 인물 (가나다순)

• 강봉수(姜鳳壽)

자는 덕수(德叟), 호는 창암(窓岩)이며, 본관은 진주이니, 교위(校威) 기(琦)의 아들이다. 진사는 문과 급제하여 진산군수를 지냈다. 임진왜란에 충열공 강수남과 함께 온양에서 순국했다. 승지에 추증하고, 충효로써 정려를 명했으며, 예조참판으로 가증했다. 정려는 배방면 신흥리에 있고, 정퇴서원에 배향되었다.

• 강세구(姜世龜) (1632~1703)

자는 중보(重寶)요, 호는 삼휴당(三休堂)이며, 호(鎬)의 아들이다. 문과 급제하여 삼사와 승지, 예조참의를 거쳐 충청감사에 이르렀다. 청백리에 선발되고, 가선대부 참판에 승진했으며, □자모록소□를 올렸다가 홍원으로 유배되었다. 사후에 신원되어 용호사에 배향했다. 묘는 온양 서봉산에 있다.

• 강운상(姜雲祥)

자는 응택(應澤)이요, 호는 이지당(二芝堂)이며, 본관은 진주이니, 은열공(殷烈公) 민첨(民瞻)의 후손이다.

천성이 효성스러워 지성으로 어머니를 섬겼다. 어머니가 물고기를 즐겼기 때문에 매일같이 물고기를 잡아다가 잡수시게 했으며, 비록 겨울이라 해도 얼음을 깨고 반드시 고기를 잡아 가지고 돌아왔다. 어머니의 상사를 당하고 3년동안 묘소 옆에 여막을 짓고 시묘를 하면서 한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승정 계유년에 효자 정려를 명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 강이기(姜履箕)

자는 사명(士明)이요, 본관은 진주이며, 창암(窓岩) 봉수(鳳壽)의 후손이다. 부친의 병환에 백일동안 하늘에 기도하였고, 연하여 세 손가락을 끊었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애통이 심하여 뼈만 남을 정도로 수척했고, 3년동안 시묘를 했다. 판결사에 추증되었고, 전제(全齋) 임헌회(任憲悔)가 행장을 지었다.

• 강 첨(姜籤)

자는 공신(公信)이요, 호는 추월헌(秋月軒)이며, 본관은 진주이니, 이지당(二芝堂)이며, 본관은 진주이니, 이지당(二芝堂) 운상(雲祥)의 아들이다. 선조때에 문과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참판, 부제학, 대사헌에 이르렀고, 부월을 가지고 지방을 순찰하여 탐관오리를 숙청했다.

벼슬이 참판 지위에 올랐으나 집안에는 한 섬의 곡식을 담아 낼 그릇이 없었고, 대문에는 뇌물이 끊어졌다. 광해군 때에 치제하였다. 二芝堂

• 강태철(姜泰轍)

자는 성하(聖夏)요, 호는 오헌(五軒)이며, 본관은 진주이니, 은열공(殷烈公) 민첨(民瞻)의 후손이다. 편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고,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근검하고 농사에 힘써 맛있는

음식과 약식을 한 번도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두 아우와 더불어 우애가 매우 돈독하였으며, 곡식과 재물을 내어 빈궁한 사람들을 구휼했다. 모친을 당하여 너무 슬퍼하다가 건강이 쇠약해 졌으며, 묘소에 여막을 짓고 시묘했다. 포상 추천을 받았다.

- 강학년(姜鶴年) (1585 ~ 1647)

자는 자구(子久)요, 호는 복천(復泉)이며, 본관은 진주(晋州)이니, 명환(名宦)을 지낸 첩(籤)의 아들로써 은일(隱逸)로 장령(掌令)을 지냈다.

인조대의 이괄의 반란에 임금의 몽진을 천안에서 맞이하였으며, 정묘호란 때에는 척화의 상소를 올렸고, 계유년(인조11년)에는 역폭소를 올려 은진으로 유배되었다 용서를 받았다. 이조참판에 증직되고, 용호사에 배향되었다. 묘는 매곡에 있다.

- 강 호(姜鎬) (1605 ~ ?)

자는 경숙(京叔)이요, 본관은 진주이며, 복천(復泉) 학년(鶴年)의 아들이다. 효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삼사의 벼슬을 거쳐 통정대부 승지에 오르고, 강원도 감사를 지냈다. 독서와 수행에 힘썼고, 특히 주역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인동과 양양의 수령이 되었을 때에는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청정비를 세웠다. 이조참판을 추증했다. 묘는 온양 분토등 자좌에 있다.

- 고의급(高義及)

효행이 두터워 복호(復戶)를 주어서 부역과 세금을 면제하였다.

- 공장렬(孔章烈)

자는 사신(士新)이요, 호는 구암(龜菴)이며, 본관은 곡부(曲阜)이니, 공자의 74세손이다. 가정의 학문을 계승하였으며, 시부에 재주가 뛰어났으므로, 지은 시가 일만여 수에 이르러, 사람들이 시호라고 일컬었다. 벼슬은 교원을 역임했다.

- 권대평(權大平)

효행으로 유명했다. 현종 10년(1669년)에 왕이 대비를 모시고, 왕비와 함께 온양온천에 행하하였다가 효행사실을 알고, 의금보 도사를 증직했다.

- 권상룡(權祥龍)

권대평(權大平)의 아들인데, 효행이 뛰어나 좌랑을 증직했다.

- 권상호(權祥虎)

상룡(祥龍)의 아우인데, 효행이 뛰어나 지평을 증직했다.

- 권 유(權愈)

효행으로 좌랑을 추증하고, 효자 정려를 명했다.

- 권정인(權定仁)

본관은 안동이며, 헌납(獻納) 중헌(中憲)의 아들인데, 진사에 합격했다.

- 김 구(金鉤) (? ~ 1462)

자는 직중(直中)이요, 호는 송정(松亭)이며, 본관은 경주이니, 대사헌 광수(光粹)의 아들이다. 세종때에 문과급제하여 대제학, 판충추부사에 올랐다. 경학이 정박했으며, 성균관에 벼슬할 때에 가르치기를 게을리 함이 없어 윤상 이후에 제일인이라고 하였다.

단종초에 나라의 형세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아산 땅으로 은거하여 오교대(五敎垓)를 축조하였다.

세조가 제학의 벼슬을 주고, 아홉 차례나 불렀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왕이 크게 노하여 벼슬을 삭탈하여 서인을 만들었다. 성종때에 신원되어 관작이 회복되고 시호를 문장이라 했다. 묘는 아산현 일북면 사기동에 있다.

- 김 근(金瑾)

자는 중보(仲寶)요, 호는 양한재(養閑齋)이며, 본관은 김해이니 충간공 보(普)의 후손이다. 숙종때에 생원이 되었는데, 자질이 순수하고 지조가 깨끗하였으며, 어려서 학문을 좋아하였다. 맑은 시냇가에 집을 짓고 양한재(養閑齋)라는 편액을 걸어 우의하였다.

- 김남찬(金南燦)

자는 자명(子明)이요, 본관은 김해이며, 충간공(忠簡公) 보(普)의 후손으로, 장사랑(將仕郎)이 되었다. 효행이 출천하여, 아버지를 정성껏 섬겼다. 부친의 병환에 배를 구하기 위하여 눈길을 걸어 배나무 아래를 지나가는데, 싱싱한 배가 저절로 떨어져서 갖다 드렸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미나리를 잡수시고자 하므로 눈이 덮인 시냇가에 나가 울면서 미나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길게 자란 미나리를 발견하여 가지고 와서 공양했다. 사람들은 그의 효성에 감응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 김남혁(金南赫)

자는 여회(汝晦)요, 본관은 김해이며, 효자 장려를 받은 현(絃)의 아들이다. 7살에 능히 문장을 지었으며, 바른 행실로 가정의 법도를 계승했다.

병자호란에 부친이 효도로 적군에게 피살되었을 때에 나이 어린 몸으로 삼년상을 치르고, 평생의 통한이 되어 삼년동안 상복을 더 입었다. 원수를 갚기 위하여 편발을 하고 심양의 두 차례나 들어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한을 머금고 돌아왔다. 끝내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으나, 문장과 학문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 김덕문(金德文)

자는 성백(聖伯)이요, 본관은 경주이며, 전서(典書) 자정(子汀)의 후손이다. 인조때에 훈련첩정의 벼슬을 하였고, 이괄의 반란에 진무 원종 공신이 되었다. 군자감정을 추증했다.

- 김 명(金銘)

무과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다.

- 김상만(金尙晩)

자는 중이(重爾)요, 본관은 경주이며, 전서(典書) 자정(子汀)의 후손이다. 현종때에 수직으로 가선대부가 되었다.

- 김선신(金善臣)

진사 사범(思範)의 아들인데, 형은 잔사 선민(善民)이었다. 형과 더불어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글씨와 그림을 잘하여 사람들이 그의 재주를 칭찬했다. 벼슬은 참봉을 지냈다.

- 김시주(金時雱)

조선시대에 정사를 맑고 간편하게 하였으며, 청백리로 유명하다.

- 김여물(金汝物) (1548 ~ 1592)

자는 사수(士秀)요, 호는 피구자(披子)이며, 본관은 순천이니, 평양부원군 승주(承霽)의 후손이다.

선조때에 문과 장원 급제하여 의주 목사를 지내고, 임진왜란에 신입장군을 따라 충주 단월역으로 달려가 조령(鳥嶺)에 이르렀다. 여기서 지형을 살펴본 다음 이렇게 건의했다.

□이렇게 산세가 험한 곳을 지켜야 적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신입장군은 이말을 따르지 않았다. 김여물은 반드시 패할 것을 알고, 아들 유에게 편지를 써 주었는데, 그 내용은

□삼도에서 군사를 불러 모았으나, 한 사람도 오는 자가 없구나. 사나이가 나라 위해 죽을 곳은 바로 여기로다.□라고 하였다.

신입은 군사를 이끌고 충주 탄금대에 주둔하여 왜군을 방어하다가 패하여 함께 순국했다. 시신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의관으로 안산에다 장례를 지냈으며, 영의정을 증직하고, 순창부원군을 봉하여 시호를 장의라 하고 충신 정려를 명했다.

- 김영렬(金永烈)

자는 중습(仲習)이요, 본관은 언양이며, 위열공(威烈公) 취려(就礪)의 후손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집안이 몹시 가난했으나 온갖 좋은 약물과 음식으로 정성을 극진히 하였다.

모친의 병환이 위독하매, 대신 병을 앓게 해 달라고 하늘에 기도하고, 대변의 맛을 보며, 손가락을 끊어 희생시키고자 하였다. 꿈에 한 노인이 와서 말하기를□명일에 반드시 영약을 얻으리라□하였다. 관연 중 한사람이 산삼을 가지고 찾아왔으므로, 달여서 올렸더니 효험을 얻어, 1년동안 더 수명을 연장시켰다. 암행어사가 이 사실을 알고 천거하여 조정에 아뢰고 포상하기에 이르러졌다.

- 김 유(金兪) (1571 ~ 1648)

자는 관옥(冠玉)이요, 호는 북저(北渚)이며, 본관은 순천이니 장의공(壯毅公) 여물(汝物)의 아들이다. 인조때에 정사영국 일등 공신에 책록되었고, 승평부원군에 봉하여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시호를 문충이라 했다. 인조의 묘정에 배향하고, 부조묘를 명했다.

- 김 윤(金胤)

자는 윤옥(允玉)이요, 본관은 김해이며, 충간공(忠簡公) 보(普)의 후손이다. 유일(遺逸) 흠(郇)의 손자로서, 세조때에 무과 급제하여 경력(經歷)의 벼슬에 올랐다.

지혜와 용기가 뛰어났고, 세조의 시종으로 공로가 있어 크게 발탁하여 등용하였으나, 얼마되지 않아 졸하였다. 나라에서 관원을 보내어 처제하고, 병조판서를 추증했다.

- 김익생(金益生)

자는 정부(靜夫)요, 호는 성재(省齋)이며, 본관은 김해이니 질(秩)의 아들이다. 태종대에 경주 부윤이 되어 빈현루를 지어 강무소로 삼았는데, 안평대군 용이 액자를 쓰고, 정인지가기를 지었다. 치적이 훌륭했고, 벼슬은 예조판서를 지냈다.

태종때에 효행으로, 효자 정려를 명하여 도고면 도산리에 정문을 세웠다.

- 김 종(金琮)

자는 여종(汝宗)이요, 본관은 김해이며 공신 윤(胤)의 후손이다.

명종때에 진사에 급제하였고, 효행이 특히 뛰어났으므로 천거를 받아 효릉 참봉을 제수했다.

- 김종학(金鐘學)

자는 학경(學卿)이요, 호는 죽헌(竹軒), 본관은 김해이니 충간공 보(普)의 후손이다. 문장이 아름답고, 덕행이 순수하였으나, 덕을 숨기어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시골에서 노부모를 봉양하며 후학들을 권장하여 온 마을의 추앙을 받았다. 유집이 있다.

- 김 질(金秩)

자는 국상(國祥)이요, 호는 송암(松菴)이며, 본관은 김해이니 금녕군(金寧君) 시흥(始興)의 후손이다.

고려조에 소부소감 벼슬을 했고, 조선 태조가 건국 초기에 과거의 정의를 생각해서 원종공신으로 책록하고, 예조판서의 벼슬을 주어 여러 차례 불렀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고 고향의 산속에 숨어서 충절을 온전히 지키며 일생을 마쳤다.

묘는 도고면 도산리 유좌에 있다. 태조때에 윤음으로 도고산 일대를 사패하고, 예장을 명하였던 곳이다. 비갈이 있다.

- 김한로(金漢老)

자는 양지(養之)요, 호는 죽포헌(竹圃軒)이며, 본관은 경주이니, 학주(鶴州) 홍욱(弘郁)의 현

손이다.

영조때에 참봉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진사를 거쳐 문과에 장원급제 하였고 삼사의 벼슬을 거쳐 판서에 이르렀으며, 청백리로 유명했다.

- 김 함(金郞)

자는 회지(會之)요, 본관은 김해이며, 충간공 보(普)에 손자로서, 벼슬은 사재감정(司宰監正)을 지냈다. 뜻과 행실이 맑고 높아서 벼슬에 나아가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연속에 묻혀 덕을 기르기 위해 아산당 죽동(竹東)에 은거했다. 태종때에 좌찬성을 중직했다.

- 김행도(金行濤)

고려 태조때에 아주제군사가 되어 아산 지방을 다스린 청백리이다.

- 김 현(金鉉)

자는 왕이(王耳)요, 본관은 김해이며, 충간공(忠簡公) 보(普)의 후손인데, 효우(孝友)가 출전했다. 병자호란(1636년)에 병든 아버지를 업고 수원지(지금의 인주면 걸매리)까지 피난을 왔다가 적군을 만났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므로, 자신의 몸으로 아버지 몸을 감싸 안고 칼에 맞아 죽었으며, 아버지는 목숨을 구했다.

경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나, 끝내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처사로서 깨끗한 선비의 지조를 지켰다. 숙종때에 정려를 명하여 음봉면 송촌리에 정문을 세웠으며, 전제 임원회가 정려기를 지었다.

- 김현성(金玄成) (1542 ~ 1621)

자는 여경(餘慶)이요, 호는 남창(南窓)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명종 19년(1564년)에 문과 급제하여 동지돈녕부사를 지냈다. 시를 잘하고 필법은 조송설(趙松雪)체를 따랐다.

- 김홍욱(金弘郁) (1602 ~ 1654)

자는 문숙(門叔)이요, 호는 학주(鶴州)이며, 본관은 경주이니 단구자(丹邱子) 적(積)의 아들이다.

인조때에 생원·진사에 합격했으나 그 방은 파하였으므로, 다시 진사에 합격하여 문과에 급제했으며, 한림이 되었다. 병자호란(1636년)에 척화를 주장했으며, 삼사와 이조정랑, 응교, 사인 등의 벼슬을 거쳐 당진의 수령이 되었고, 호서의 안찰을 하여 대동법을 창설했다. 갑오년(1654년)에 황해도 관찰사로서 강빈의 원옥사건을 구하기 위한 상소를 올렸다가 효종의 미움을 받아 서울로 잡혀와 국문을 받다가 졸하였다.

송시열과 송준길이 건의하여 관직이 회복되고, 이조판서를 추증하여 시로를 문정이라 했다. 문집이 있고, 성암서원에 배향되었으며, 지재(趾齋) 민진후가 행장을 지었다.

- 김효일(金孝一) (1610 ~ 1664)

자는 행초(行初)요, 호는 미은(美隱)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7세에 부친을 여의고, 어머님께 지극한 효도로 섬겼으며, 어머님 병환에 손가락을 끊어 약에 섞어 바쳐서 소생시켰다. 그 후에 모친상을 당하여 애통하다가 졸하였다. 현종 대왕이 대비를 모시고, 왕비와 함께 온양온천에 행행하셨다가, 이 사실을 아시고 효행으로써 의금부도사를 특증하였다.

- 남 간(南簡)

본관은 의령이요, 증령의정(贈領議政) 경문(景文)의 아들이다.

정종때에 생원으로 형조좌랑이 되고, 문과 급제하여 예문관 직제학을 지냈으며, 청렴결백하고 절개가 높았다.

- 남경문(南景文)

본관은 의령이며, 구정(龜亭) 재(在)의 아들이다. 세종때에 무과급제하여 병조의랑을 지냈으며, 영의정을 증직했다.

자는 희숙(禧叔)이요, 본관은 의령이며, 충신 국신(國信)의 아들이다. 인조 병자호란 뒤에 세 상일을 사절하였고, 포저 조익의 천거로 감역, 주부벼슬을 주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으며, 여생을 그대로 마쳤다.

- 남국결(南國傑)

본관은 의령이요, 직제할 간(簡)의 후손이다. 임진왜란에 의병장으로서 삭령에서 전사했다.

도고면 시전리에 허장을 했다.

- 남국신(南國信)

자는 사립(士立)이요, 본관은 의령이며, 국결(國傑)의 아우이다. 임진왜란에□위로는 나라를 위하고, 아래로는 형을 위하여 원수를 갚으리라□라고 스스로 맹세하고, 죽음을 각오하여 왜적과 싸우다가 순국했다. 이순신과 이산해가 그를 칭찬하여□충의당□이라고 하였다.

- 남을번(南乙蕃) (1351 ~ 1395)

본관은 의령이요, 부사(副使) 군보(君甫)의 증손이다.

고려의 밀직부사로서,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아들 재의 공훈 때문에 찬화공신의 호를 내렸으며, 벼슬은 문하 시중에 이르고, 의령부원군을 봉하였으며, 시호는 경렬이라 했다.

- 남 재(南在) (1351 ~ 1419)

초명은 겸(謙)이라 하고, 자는 경지(敬之)이며, 호는 구정(龜亭)이니, 본관은 의령이다. 명신 을번(乙蕃)의 아들인데, 고려조에 진사로서 경국제세에 뜻을 두어 조선 태조 대왕과 함께 개국에 참여했다. 태조가 이름을 재(在)라 지어 주고, 개국 일등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의령 부원군

이 되고, 영의정을 지냈다. 시호를 충경이라 하고, 태조의 묘정에 배식되었으며, 부조묘를 명했다.

- 남효온(南孝溫) (1454 ~ 1492)

자는 백공(伯恭)이요, 호는 추강(秋江)이며, 본관은 의령이니, 직제학(直題學) 간(簡)의 증손으로 진사에 올랐다.

18세때에 소릉(昭陵 :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의 능)의 복구를 세조에게 상서했으며,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

일찍이 육신전을 지었는데, 그 문인들의 큰 화가 이를 것을 두려워하여 저술을 하지 말라고 건의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며 대현의 자취를 없애지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 또 야사를 지었다. 연산군때 갑자사화(1504년)가 일어나자, 소릉회복 상소문 때문에 남효온의 무덤을 파 해치는 화를 입었다. 정조때에 이조판서를 추증하고, 시호를 문정이라 하였으며,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영월의 창절사에 배향되었다.

- 맹계증(孟繼曾)

본관은 신창이며, 명신 사성(思誠)의 후손이다. 문장과 학식이 높아 세자 세마벼슬을 했고, 공조참판에 추증되고, 신원군을 봉했다.

- 맹 도(孟堵)

자는 사후(士厚)요, 본관은 신창이니, 명신 사성(思誠)의 후손이다. 무과 급제하여 훈련관이 되었고, 인조때 갑자년 이괄의 반란에 안현전투에서 대첩을 거두어, 진무 이등 공신에 책록되고, 병자호란 때에는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가했는데, 피부가 동상을 입어 상하고, 손과 발이 모두 터진 것을 본 왕은 그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겨 선전관을 특제하였고, 강화도에 두 차례나 사신으로 다녀왔다.

한호 김원행이 지문을 지었고, 종친인 뇌풍재 흠요가 행장을 지었다. 묘는 송악면 동학리의 백화동 사좌에 있고, 묘표가 있다.

- 맹사성(孟思誠) (1359 ~ 1438)

자는 성지(誠之)이요, 호는 고불(古佛)이며, 본관은 신창이니 제학(提學) 회도(希道)의 아들이다. 고려조에서 생원·진사를 거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 송경을 바라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여 검은 소를 거꾸로 타고 서울을 왕래했다. 대사헌으로 있을때에 태종의 부마 조대립이 특권을 가지고 백성을 학대하므로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단했다. 성격이 맑고 전결하며, 단정하고 무게가 있었다. 재상이 되어서는 대체를 유지함에 힘썼다. 세종때에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는데, 태종실록이 완성되자, 세종이 이것을 읽어 보려고 하였다. 사성이 말하기를

□실록은 모두 당세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므로, 임금께서 만약 한 번 읽어 보신다면, 사관이

두려워해서 그 직분을 다할 수 없으니, 어찌 실록을 장래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세종이 그의 말에 따라 태종실록을 읽지 않았다.

집안 살림을 다스리지 않아, 거처하는 집이 비바람을 막지 못했고, 출입할 때에는 소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재상인 줄을 알지 못했다. 세종을 도와 천지를 화육하고, 모든 업적이 빛나서, 요순과 같은 태평시대의 치적을 이루었다. 청백리에 선발되고, 효행으로 정려를 내렸으며, 별세했을 때에는 세종께서 조정 백관을 거느리고 통곡했다고 하였다. 시호를 문정이라 했다.

명신으로 유명한 동시에 효자로서 더욱 존경을 받았다. 10세에 모친상을 당하여 물과 장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3년동안 무덤아래에 여막을 짓고 시묘하였다. 이때에 하얀 까마귀가 연막에 등지를 짓고 함께 살았다고 하며, 묘소에 오르내기를 자주하여 계단의 풀이 나지 않았다. 부친상을 당해서도 한결같이 하였는데, 무덤앞에 있던 큰 잣나무가 산돼지에게 부딪쳐 죽어버렸다. 이것을 보고 3일동안 통곡을 하였더니, 그 산돼지를 호랑이가 와서 물어 죽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전고에 듣지 못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태종때에 효자 정문을 세우도록 명하여, 생존시에 생정려를 배방면 금곡리에 세웠다.

• 맹세형(孟世衡)

자는 여평(汝平)이요, 호는 하곡(霞谷)이며, 본관은 신창이니, 명신(名臣) 사성(思誠)의 후손으로 사계(沙溪)의 문인이다. 인조때에 문과 급제하여 안동부사가 되었으며, 병자호란(1636년)이 일어나던 해에 선산에 수령으로 있었는데, 오랑캐 침입의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아 남한산성을 달려가고자 했으나, 경상감사의 명령으로 중지했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 입근, 수용, 척화등 10여가지 사항을 추장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으며, 봉사1책이 있다. 이조참판 제학을 추증했다.

• 맹 유(孟裕)

본관은 신창이요, 전서(典書) 의(義)의 아들이다. 고려 공민왕때에 문과 급제하여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다. 고려가 망하자, 태학생 조의생 임선미 등과 함께 서두문동으로 들어가 충절을 지켰다.

조선 영조 신미년(1751년)에 표충사를 세우고, 삼절신과 아울러 매향했다.

• 맹희도(孟希道)

호는 동포(東浦)요, 본관은 신창이니, 상서(尙書) 유(裕)의 아들이다. 공양왕 때에 문과 급제하여 한림어사, 수문전 제학을 지냈다. 정몽주, 길재와 같은 충신들과 도의로써 교제하였으며, 고려가 망하자 세상일을 사절하고, 온양 설화산 아래 금곡촌으로 퇴거하여 산수를 즐기며 나오지 않았다. 태종이 여러 차례 불렀으나 굽히지 않으므로, 또 다시 엄한 독촉이 내렸다. 마침내 아들로써 대행하도록 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하고, 몸소 밭을 갈며 출사할 뜻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두문동 제현들과 더불어 송도에서 몸을 깨끗이 닦고 함께 맹세하여, 의리를 지키고 충절을 온전하기로 다짐했다. 송도(개성)에는 세신정이라는 우물과 희맹대라는 장소가 남아 있

다고 한다.

절의가 높았던 동시에 효성으로도 하늘을 감동시킨 효자였다. 어버이 섬김에 어긋남이 없었고,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였으며, 양친의 전후 상사에 몸소 흠은 져다가 무덤을 이루고 죽을 마시며 여막에 시묘하였다. 무덤앞에 엎드려 피눈물 흘리며 울었고, 계단의 풀이 자라지 못할 정도로 묘소에 왕래하였다. 하얀 까마귀가 무덤가 여막에 등지를 짓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효성에 감동한 까닭이라고 칭송했다.

고려 공양왕 때에 효자 정려를 명하였으며, □삼강행실록□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배방면 금곡리에 정려가 있다.

묘는 온양시 법곡동 건좌에 있으며, 영조 경오년(1759년)에 예관을 보내어 치제했다.

- 박건양(朴健陽)

진규(晉揆)의 아들인데, 진사로서 참봉을 거쳐 현감에 이르렀다. 백성을 아끼고 정사를 간소하게 하였으며, 장수하여 첨지 중추부사에 승차했다.

- 박관덕(朴觀德)

자는 가회(嘉會)요, 호는 서원(西圓)이며, 본관은 함양이니, 사마(司馬) 의화(義和)의 아들이다. 시와 부에 뛰어나서 여러차례 향시에 합격했으나,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포의로 마치고, 사우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유고가 남아 있다.

- 박 권(朴權)

자는 이경(而經)이요, 호는 고광(孤洸)이며, 본관은 함양이니, 오한(五恨) 성건(成乾)의 아들이다. 문과 급제하여 정언이 되었으며, 연산군에게 상소를 올려 충간하다가 길주로 유배되었고, 다시 해남으로 옮겨다가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중종때에 대사간의 벼슬을 내려 불렀으나, 이미 세상을 떠나 뒤였다. 기묘 명현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농암 김창협이 행장을 지었고, 축정서원에 배향되었다.

- 박기조(朴起租)

자는 기지(起之)요, 호는 수남(水南)이며, 본관은 함양이니, 유일(遺逸) 지양(知讓)의 자손이다. 진사가 되어 의흥, 임천 평산의 수령을 역임하고 한성 서윤을 지냈다. 인현황후가 궁중에서 사제로 물러나왔을 때에 과거 급제자로서 홀로 나아가 절하고, 적막한 환경에서 군신과 모자의 의미를 다했다. 영조때의 영의정 김재로가 아뢰기를,

□박기조가 홀로 서궁에 배알하여 그 의리가 송갑조와 다름이 없으니, 마땅히 포상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특별히 이조참판을 추증하였다.

- 박뇌공(朴雷公)

광대로서, 그 아내와 더불어 함께 효자·효부 정려를 명했으며, 그 딸의 신역을 면제해 주었다.

• 박성오(朴省吾)

자는 자안(子安)이요, 본관은 함양이니, 절의로 유명한 권의 현손이다. 벼슬을 가선대부 부총관을 지냈고, 평소에 행실이 지극히 돈독하여 부친이 종기를 앓고 있을 때, 두꺼비가 약이 된다는 의원의 말을 듣고, 선달 추운 날씨에 눈이 쌓인 뜰에나가 통곡을 했다. 때마침 한 마리 두꺼비가 뛰어나와서 약을 써서 즉효를 얻었다. 사람들이 효성에 감응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인조때에 정사공신과 진무공신이 되었으며, 병자호란(1603년)에 남한산성으로 호가했다.

• 박세무(朴世茂) (1487 ~ 1554)

자는 경번(景番)이요, 호는 소요당(逍遙堂)이며, 본관은 함양이니, 이조판서에 추증된 중검(中儉)의 아들이다. 중종때에 진사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국의 직서로 있었는데, 당시에 김안로와 이기가 국정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미워했다. 벼슬을 군자감정에 이르고, 동몽선습을 저술했는데, 영조의 서문과 문정공 송시열의 발문이 있다.

예조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를 문정이라 하였으며, 괴산의 화함서원에 배향했다.

• 박의중(朴宜中)

자는 자허(子虛)요, 호는 정재(貞齋)이며, 본관은 밀양이니, 목은의 문인이다. 벼슬을 참찬의 정부사에 이르고 시호는 문경이다. 묘는 아산현 일북면 적천동에 있다.

• 박의화(朴義和)

자는 공리(公利)요, 본관은 함양이며, 유현(儒賢) 지계(知誠)의 후손이니, 문경공(文敬公) 중주(中州) 이직보(李直輔)의 문인이다. 정조때에 진사에 급제하여 여러차례 참봉으로 발탁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 박재삼(朴在三)

자는 군실(君實)이요, 호는 서은(書隱)이며, 관덕(觀德)의 아들이다. 집안이 가난했으나, 학문을 좋아하고 영리를 구하지 않았으며, 향당에서□금세의 소납□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유고가 남아있다.

• 박지계(朴知誠) (1573 ~ 1635)

자(子)는 인지(仁之)요, 호는 잠야(潛冶)이며, 본관은 함양이니, 소요당(逍遙堂) 세무(世茂)의 손자이다.

선조때에 은일로서 세자 사부를 거쳐 벼슬이 찬선에 이르렀고, 효행이 있었다. 이조 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목이라 하며, 인산서원에 배향되었다.

• 박지양(朴知讓)

자는 득경(得卿)이요, 호는 도촌(陶村)이며, 본관은 함양이니, 소요당(逍遙堂) 세무(世茂)의 손자이다. 문장, 행실, 학문이 뛰어났으며 인조때에 육품(六品)의 벼슬에서 직급을 뛰어넘어 광흥(廣興)군수가 발탁되었고, 참판 벼슬에 이르렀다.

- 박진규(朴晉揆)

호는 군석(君錫)이요, 본관은 함양이며, 유현(儒賢) 지계(知誠)의 현손이다. 영조때에 유현(儒賢)의 사손(祀孫)으로 특전을 입어 참봉이 되고, 현감이 되었다. 무신년(1728년)에 이인좌(李麟左)의 반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규합하였으며, 곧 반란이 평정되었다.

벼슬에 임하여 맑은 정사를 많이 베풀었으며, 장수하여 첨지중추부사에 승진했다. 여서인 이 직보가 행장을 지었다.

- 박천주(朴天籌)

자는 운재(運哉)요, 호는 설계(雪溪)에, 본관은 함양이니, 절의(節義)의 권(權)의 후손이다.

부친의 병환에 대변의 맛을 보면서 손가락을 끊어 피를 약으로 바쳤다. 부친상을 당하여 죽을 마시면서 시묘하였고, 3년 동안 하루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호곡하였다. 그리고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전례대로 행하였으며, 사람들은 그의 묘소를 시묘동이라고 일컬었다.

- 박수림(朴守林)

본관은 초계이며, 현감 자호(自浩)의 손자인데, 음사(陰士)로 현감(縣監)을 지냈다.

- 변홍조(卞弘祖)

본관은 초계이며, 현감 자호(自浩)의 아들이다. 무과 급제하여 첨사를 지냈다.

- 변희일(邊希一)

벼슬은 오위도총부 도사를 지냈으며, 병자호란(1636년)에 남한산성으로 달려갔으나, 적구로 길이 막혀 진입하지 못하고, 충청도 진중으로 들어가 전진할 계획으로 금천으로 가다가 적군을 만나,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전사했다. 병조참판을 추증했다.

- 상 남(相男)

효행으로 정례를 세웠다.

- 성문준(成文濬) (1559 ~ 1626)

초명은 문부(文傅)이며, 자는 중심(仲深)이요, 호는 창랑(滄浪)이니, 선정(先正) 혼(渾)의 아들이다. 진사로서 세마를 지냈고, 학문으로 사단이 되고 영동고들의 원이 되어 치적을 남겼다. 경서에 힘쓰고, 병이 나서도 중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파주의 경현사에 배향되었다.

- 성수심(成守琛)

자(字)는 중옥(仲玉)이요, 호는 청송(淸松), 또는 우죽(又竹), 우당(雨當)이라 하고, 본관은 창녕(昌寧)이니, 정암(靜菴)의 문인이다. 행실이 돈독하고 학문에 힘써, 정석현감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기묘사화에 많은 현인들이 참화를 입는 것을 보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파평 산 아래로 돌아왔다. 우의정을 증직하고 시호를 문정이라 하였으며, 파주의 파산 서원에 배향하였다.

- 송 서(宋瑞) (? ~ 1353)

본관은 여산인데, 낙랑부원군 분(玢)의 아들이다. 고려 충렬왕때에 순성보리익찬공신이 되었고, 삼충대광도첨의정승, 판전리사사, 상호군의 벼슬을 지내고 치사했다. 여량부원군에 봉하여 식읍 삼백호를 내렸고, 시호를 정가라 했다.

- 신말주(申末舟)

자는 자즙(子楫)이요, 호는 귀래정(歸來亭)이며, 본관은 고령이니 고령부원군 암헌(岩軒) 색(穉)의 아들이다.

문과 급제하여 집의를 거쳐 대사간에 이르렀다. 정축년(1457년)에 단종을 영월로 유배하자, 벼슬에 뜻이 없어, 순창에 귀래정을 지어 10여명의 노인들과 더불어 시를 노래하며 생애를 마쳤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깨끗한 충절을 칭찬하였고, 나라에서는 이조참판을 추증했다. 순창의 화산서원에 배향했다.

- 신명견(申命堅)

자는 숙고(叔固)요, 호는 운포(雲浦)이며, 본관은 평산이니, 화당(化堂), 민일(敏一)의 손자이다. 효종때에 학문으로 후릉 참봉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 신 유(申濡)

자는 군택(君澤)이요, 호는 죽당(竹堂)이며, 본관은 고령이니, 귀래정(歸來亭) 말주(末舟)의 후손이다.

인조때에 진사가 되고, 문과 장원급제하여 예문관의 벼슬을 지냈고, 영국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효도하고, 우매하며, 청수하고,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병자호란 이듬해인 정축년(1673년)에 세자를 모시고 심양에 들어갔다가 돌아왔고, 계미년(1643년)에는 부사로서 일본에 다녀왔으며, 임진년(1652년)에는 연경에 다녀왔다. 벼슬은 예문관 직제학에 이르렀고, 문집이 남아있다.

- 신재동(申在東)

본관은 평산이며, 대사헌 사달(思達)의 증손인데, 진사에 급제했다.

- 신 흠(申欽) (1566 ~ 1628)

자는 경숙(敬叔)이요, 호는 상촌(象村) 또는 현옹(玄翁)이라 하고, 본관은 평산이니, 이간공영의 손자이다.

선조때에 진사가 되고, 문과 급제하여 이조판서 대제학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일찍이 아산현감으로 있을때에 혜정을 베풀었으며, 시호는 문정이라 하고, 인조 묘정에 배식하였다.

청백리로 유명하다.

- 안경공(安景恭) (1347~1421)

자는 손보(遜甫)이며, 본관은 순흥이며, 명신 축(軸)의 손자이다. 재국삼등공신이 되고, 문과에 급제하여 보국영삼사사, 집현전 대제학을 지내고, 홍령부원군이 되었으며, 시호는 양도이다.

- 안송선(安崇善) (1392~1452)

자는 중지(仲止)요, 호는 웅재(雍齋)이며, 본관은 순흥이니, 호조판서 순(純)의 아들이다. 태종때에 문과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좌참판, 병조판서에 이르고, 시호는 문숙이라 하였으며, 예장을 명하였다. 매죽당 성삼문이 신도비의 비문을 지었다.

- 안 유(安裕) (1243~1306)

초명은 향(珦)이었는데, 임금님의 이름과 같아서 개명했다. 자(字)는 사온(士蘊)이요, 호(號)는 회헌(晦軒)이며, 본관은 순흥이다. 밀직부사를 지낸 부의 아들로서 고려 원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벼슬이 첨의중찬에 이르렀다. 어려서부터 성리학을 좋아하여 항상 회암의 초상화를 걸어 놓고 존경하며 사모했다. 학교가 쇠퇴하는 것을 근심하여 섬학전을 마련하였으며, 중국에 들어가서 공자의 70제자 초상화를 그리고, 또 제기와 악기, 육경, 제자, 사서 등을 구입해 가지고 돌아와서 문묘를 창설하고 제생들을 교육했다. 시호는 문성이며, 충숙왕 때에 문묘에 배향되었다.

- 안정우(安鼎禹)

초명(初名)은 식(湜)이요, 자는 경구(敬九)이며, 본관은 순흥이니 선정(先正) 유(裕)의 후손이다. 지극한 효성으로 양친을 봉양하였고, 부친의 병환에 대변을 맞보았다. 자제들을 가르치되, 덕행을 근본을 하고, 문예를 끝으로 하였으며, 영재교육을 즐기고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며, 의리 지키기를 좋아했다.

- 안처의(安處義)

무과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다.

- 안 축(安軸) (1282~1348)

자는 당지(堂之)요, 호는 근재(謹齋)이며, 본관은 순흥이니 제학(提學) 석(碩)의 아들이다. 고려조에서 문과에 급제하고, 원조의 과거에도 급제했다. 벼슬은 도첨의 찬성사, 대제학을 지내고 홍령부원군을 봉하여 시호를 문정이라 했다. 소수서원에 배향되고 문집으로 근제집이 있다.

- 오달주(吳達周)

자는 계현(季賢)이요, 본관은 해주이며, 명신(名臣) 윤겸(允謙)의 아들이다. 벼슬은 급구현령을 지냈고,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묘는 안산 잉화곡에 있다.

- 오두웅(吳斗雄)

자는 계명(季明)이요, 호는 은곡(隱谷)이며, 본관은 해주이니 응교(應敎) 백천당(百千堂) 숙의 아들이다. 효행이 특히 뛰어나, 지평에 추증되거, 정려를 명했다. 문정공 도암 이재가 묘갈문을 짓고, 문정공 오재순이 묘표문을 지었으며, 문순공 남당 한원진이 묘지를 지었다.

- 오명걸(吳命傑)

효자 수경(遂慶)의 아들이며, 효녀 정씨의 손자인데,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를 섬겨 효자정려를 세웠다.

- 오수헌(吳遂憲)

자는 (君範)이요, 본관은 해주이며, 명신(名臣) 윤겸(允謙)의 증손이다. 92세의 장수를 하여, 수직으로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묘는 안산 잉화곡에 있다.

- 오윤겸(吳允謙) (1559 ~ 1636)

자는 여익(汝益)이요, 호는 추탄(秋灘)이며, 본관은 해주이니, 영의정에 추증된 희문(希文)의 아들이다.

우계의 문인으로, 벼슬에 나아가 삼년동안 정사가 되어 수로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광해군 때에는 인목대비 폐모 논의를 준엄하게 배척하고, 정인홍을 물리치고 퇴계와 회재 두 선생에 대한 무고를 변호했다. 벼슬은 영의정에 이르고, 세자의 사부를 지냈으며 문집이 남아있다. 구암서원에 배향되었다.

- 오정방(吳定邦) (1552 ~ 1625)

자는 영언(英彦)이요, 호는 퇴전당(退全堂)이며, 본관은 해주이니 병조판서에 추증된 수역의 아들이다. 명종때에 무과 장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에 공을 세워 선무공신에 책록 되었다. 광해군 때에는 인목대비를 폐위하자는 간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갑자년에 이괄의 반란을 당하여 호가 대장으로서 인조를 모시고 공주에까지 호종했다. 벼슬은 경상 절도사를 지내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어, 시호를 정무라했다. 영의정 이경석이 신도비의 비문을 짓고, 현손 태주가 묘지를 지었다.

- 오희문(吳希文)

자는 비연(斐然)이요, 본관은 해주이며, 좌찬성(左贊成) 경민(景閔)의 아들인데, 벼슬은 감역(監役)을 지냈다. 70세에 친상을 당하여 묘소아래 여막을 짓고 거처하며, 3년동안 죽을 마시면서 애통하였다.

청음 김상헌이 일찍이 말하기를,

□사업이나 문장은 이루지 못했으나, 집안에서의 행실은 순수하고 돈독하다□고 하였다.

영의정을 추증했고, 묘는 경기도 광주의 토당리에 있는데, 후손 부제학 명신이 묘표를 지었다.

- 유세권(柳世權)

효행으로 좌랑을 증직했다.

- 유악주(兪岳柱)

병사 정(挺)의 후손인데, 문과 급제하여 대사간을 지냈다.

- 유희증(兪希曾)

본관은 기계이며, 음사(蔭仕)로 군수를 지냈다.

- 윤승원(尹承元)

무과 급제하여 서서(筮仕)를 했으며, 병자호란(1636년)에 근왕(勤王)하기 위하여 남한산성으로 향하다가, 충청도 진중으로 들어가 적과 분전하다가 전사했다.

- 윤영선(尹瑛善)

자는 경동(敬冬)이요, 호는 석계이며, 호는 해평이니, 오음 두수의 후손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5세에 모친을 여의고 어린 나이에 사모하여 울부짖었다. 홀로 계신 부친께 지성으로 공양하였으며, 부친의 병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깨물어 입에 피를 흘려 넣었고, 부친상의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3년동안 시묘하면서 새벽과 저녁에 성묘하여 무릎을 꿇었던 자리에 웅덩이를 이루었다.

자선사업으로 은혜를 베풀어 온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포양했다.

- 윤 인(尹隣)

자는 인지요, 본관은 파평이니, 대사간(大司諫) 절(哲)의 손자다. 중종때에 무과 급제하여 승지가 되었는데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여덟살에 부친을 여의고 장성해서 추복을 업었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효성을 칭찬했다. 힘써 학문을 닦아 스스로 금지를 지녔으며, 시율이 맑고 건실하였고, 필법이 예스러웠다. 여러차례 문과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하여 투필하였으며, 아홉차례나 주의 목사를 역임하면서 유명한 정사를 많이 베풀었다.

일찍이 호조 낭관으로 있을 때 왕의 탑전에서 문신들의 재주를 시험하는데 장원을 했다. 왕이 상으로 도화마 한 필을 주면서 시를 지으라고 하므로 다음과 같이 지어 올렸다고 한다.

龍駒初出渥哇津	용마가 처음 악와나루에서 뛰어나와
走入桃園避虐秦	진시황의 학정을 피해, 도원으로 달려갔네.
背上落花風不掃	말잔등의 낙화는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至今猶帶武陵春	지금도 오히려 무릉도원 봄기운을 띠고 있네.

- 윤 절(尹哲)

자는 희점(希點)이요, 본관은 파평이며 태위(太尉) 안비(安庇)의 후손이다. 세종때에 무과 급제하여 대사간이 되었고, 연산군때에 직언을 하며 화를 입었다. 중종때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

다.

- 윤지복(尹之復)

호는 용암(勇庵)이니, 자임(自任)의 현손이다. 정두경, 차천로, 민사성, 공회성, 이진행, 정운봉, 강취무 등으로 더불어 팔문장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선조때에 진사가 되고, 문과 급제하여 강원도 도사로 부임하였으며, 이때에 횡성의 역적 이인거를 생포하여 일등공신에 책록되었다.

- 윤춘수(尹春壽)

혜정을 베풀어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편안했으며, 청맥으로 유명했다.

- 윤현(尹倪)

호는 양심당(養心堂)이며, 효행으로 중직하였다.

- 윤혼(尹焜) (1676 ~ 1725)

자는 회보(晦甫)요, 호는 천서(泉西)이며, 본관은 파평(坡平)이니, 참관을 지낸 매음 근(根)의 현손이다.

수암의 문인으로 경종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벼슬을 했다. 학문이 크고 깊어 낙론을 주장했고, 강문 팔학사 가운데에 한 사람이 되었다.

- 이간(李柬) (1677 ~ 1727)

자(字)는 공거(公舉)요, 호는 외암(巍岩)이며, 본관은 예안이니, 수암(遂庵)의 문인이다.

영조때에 은일로서 자의가 되고, 경연관을 지냈다. 어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고, 학식이 고명하여 남당 한원진으로 더불어□이기 오상□의 설을 토론했으며, 낙론을 주장했고, 강문 팔학사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를 문정이라 하고, 송악면 외암리에 부조묘를 명했다. 묘는 송학면 외암리 후록 삼상당을 좌에 있는데, 묘표가 있고, 신도비는 매산 홍직필이 짓고, 판서 윤용구가 글씨를 썼다.

- 이강열(李綱烈)

호는 운석(雲石)이요, 본관은 예안이며, 유현 간의 후손이다. 문장, 학문, 행의로 칭찬을 받았으며, 진사에 급제했다.

- 이건주(李建胄)

자는 계탁(季卓)이요, 호는 병수(病叟)이며, 유현(儒賢) 간(柬)의 손자이다. 경학에 뛰어나서 백의로 천거를 받아 입시하였고, 감염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여러차례 부름을 받아 입시하였다. 벼슬을 광흥장수에 그쳤으나 어버이 섬기기에 효성이 지극하여 여러차례 고을

수령으로부터 천거되어 효자 정문을 내렸다.

- 이 계(李楷)

자는 군식(君式)이며, 본관은 연안이니, 인충(仁忠)의 손자이다. 중종때에 남부 참봉을 지냈고, 중종 2년(1507년)에 이과의 역모사건을 토벌하여 정난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경서에 밝고 행실이 엄하여, 덕을 숨기고 벼슬하지 않았다. 이조참판을 추증하였다.

- 이굉식(李宏植)

자는 번보(蕃甫)요, 본관은 전의이니, 문의공(文義公) 언충(彦冲)의 후손이다. 세종때에 구례현감을 지냈고, 효행이 특히 뛰어났다. 이조판서를 추증했다.

- 이단석(李端錫) (1623 ~ 1688)

자는 유초(有初)요, 호는 쌍호당(雙壺堂)이며, 본관은 완산이니, 경명군(景明君) 침(忱)의 후손이요, 청백리 제형(霽衡)의 아들이다. 현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벼슬이 예조참판에 이르고, 유장으로 천거되어 북병사가 되었다. 청백리로서 이조판서, 양관 대제학에 추증되고 장천서원에 배향되었다.

- 이덕로(李德老)

자는 득보(得甫)요, 본관은 한산이며, 절의(節義) 계(楷)의 현손이다. 부친의 병환에 삼일동안 추운 겨울날씨를 무릅쓰고 하늘에 기도하여 유용탕을 감득해서 올리니, 효험을 얻었다. 계모의 병환이 위독할 때 벌이 품안으로 날아 들어오므로 살펴보니, 벽 사이에 벌집이 있었다. 거기서 꿀을 얻어 계모에게 드렸더니 효험이 있었다. 그후에 또 병환이 들었는데, 큰 뱀이 방안으로 떨어져 내려와 환약을 토해 냈다. 전날밤 꿈에 가르침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환약을 물에 타서 복용해서 회생했다. 한 고을이 포상을 추천했다.

- 이문우(李文宇)

자는 공칠(公七)이요, 호는 화암(華庵)이며, 본관은 전주이니, 대사헌 충정공 송교(松郊) 무(務)의 후손이다. 경서에 밝고 행실을 바르게 닦으며, 몸가짐을 단정하고 엄숙하게 했다. 효성과 우애, 신의가 돈독했는데 공주에 가서 벼슬하다가 며침내 아버지의 임종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공거를 폐하고 날마다 시경 요아편을 암송하였으며 병이 심해졌으나, 오히려□호천 망극□의 구절을 암송하여 목이 메었다.

- 이 변(李邊) (1391 ~ 1473)

본관은 덕수이며, 영의정에 추증된 진(晉)의 아들이다. 태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홍문관 제학이 되고, 벼슬이 영종추부사에 이르렀으며 기사에 들었다. 저서로는□훈세평고□가 있다.

- 이봉상(李鳳祥)

자는 의숙(義叔)이요, 순신(舜臣)의 후손인데, 장수의 제목으로 특별히 천거되어 무과 급제하였고, 승지, 포도대장, 훈련대장 등을 거쳐 형조참판에 이르렀다. 영조때에 영의정 이광좌의 미움을 받아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추천되어 청주 병영에 있을 때 이인좌의 반란이 일어났다. 무

신년(1728년) 경술, 눈내리는 밤에 적도들도 청주 병영을 사방을 포위하고, 병사(이봉상)을 생포하여 항복을 받으려 했으나, 끝까지 항거하다가 순절했다. 좌찬성을 추증하고 시호를 충민이라 하였으며, 충신 정려를 명하여 현충사에 배향하고, 부조묘를 명했다. 묘는 탑동산에 있는데, 신도비는 도암 이재가 비문을 짓고, 대사헌 민우수가 글씨를 쓰고, 영의정 유척기가 전수하였다.

- 이 분(李芬)

자는 형보(馨甫)요, 호는 묵헌(默軒)이며, 본관은 덕수이니, 증참판(贈參判) 회신(會臣)의 아들이다. 선조때에 진사와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정랑을 지냈다. 학행이 뛰어났고, □가례박해 □ □방례류편 □ 등을 저술했다.

- 이석번(李碩蕃)

본관은 아산(牙山)이다. 중종때에 정국공신에 책록되고, 아성군에 봉해졌으며, 공조판서를 지냈다.

- 이선복(李善復)

자는 백길(伯吉)이다. 호는 북촌(北村)이며, 본관은 전의이다. 선조때에 문과 급제하여 예문관과 홍문관의 벼슬을 거쳐 이조정랑이 되었으며, 의주부윤을 거쳐 병조참판이 되고 부제학에 올랐다. 이조판서를 추증했다.

- 이 성(李晟)

고려 충렬왕때에 과거 급제하여 온수 감무로서 온양지방을 다스렸는데, 청백하기로 이름이 알려졌다.

- 이성렬(李聖烈) (1865 ~ ?)

자는 우명(友明)이요, 호는 퇴암(退庵)이며, 본관은 예안이니, 유현(儒賢) 간(東)의 후손이다. 고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참찬관이 되고 여러차례 관찰사를 지냈다. 청백리로서 치적이 있었고, 청덕비가 있다.

- 이 순(李淳)

자는 임후(壬厚)요, 호는 창곡(蒼谷)이며, 본관은 한산이니, 목은(牧隱) 색(穡)의 후손이다. 중형 채암 흠으로 더불어 우계의 문하에서 수입하여 문장과 학문이 고명하였고, 인조때에 도승지 벼슬을 하였으며, 병자호란에 패전소식을 듣고 분함을 참지 못하여 피를 토하고 졸하였다.

- 이순신(李舜臣) (1545 ~ 1598)

자는 여해(汝諧)이며, 본관은 덕수이다. 용기와 지략이 뛰어났고, 충효심이 남달리 두터웠다.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 수사가 되었고, 임진왜란을 당하여 삼도수군 통제사에 올랐다. 거북선을 만들어 크고 작은 전투에서 30여회의 대첩을 거두었다.

1598년 11월에 노량 해전에서 왜적을 대파하고, 적탄에 명중되어 순국했다. 선무 일등 공신에 책록되고, 덕풍부원군을 봉하여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를 충무라 하고 부조묘를 명하여 현충사에 배향했으며, 충신 정려를 명했다.

묘는 음봉면 어라산 아래에 있으며, 소재 이이명이 묘갈문을 지었다. 신도비는 잠곡 김육이 비문을 짓고, 글씨는 죽남 오준이 쓰고 전서를 참판 이정영이 썼다. 그리고 정조의 어제와 어필로 전수한 상충정무지비가 있다.

- 이 신(李薰)

본관은 덕수이며, 훈(薰)의 아우이다. 정묘호란(1627년)때에 종형 완(莞)을 따라 의주에서 힘을 다해 싸우다가 순절했다. 정조때에 병조참의를 추증했다.

- 이 열(李烈)

자는 자흥(子興)이요, 본관은 덕수이며, 충무공 순신(舜臣)의 아들이다. 선조때에 음사(蔭仕)로 벼슬에 나아갔다가 광해군 때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인조반정으로 처음에는 충훈부 도사가 되었다가 형조 정랑이 되었다. 집안에 비자가 있었는데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 광해군이 그 비자를 취하고자 명령을 내렸으나, 신자의 도리로서 임금에게 미색을 바치는 것은 불충이 된다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바치지 않았다.

- 이영성(李永成)

본관은 용인이며, 문과 급제하여 정랑을 지냈다.

- 이 완(李莞) (? ~ 1627)

자는 열보(悅甫)요, 본관은 덕수이니 참판 회신(羲臣)의 아들이며, 순신(舜臣)의 조카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의주부윤을 지냈다. 19세때에 숙부이신 충무공을 따라 종군하여 왜적 토멸에 공을 세웠으며, 갑자년(1624년) 이괄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충청병사로서 반란을 평정하여 자헌대부에 승차했다.

의주부윤으로 있을때에 정묘란(1627년)이 일어나, 적과 싸우다가 순국했다. 병조판서를 추증하고 시호를 강민이라 했으며, 충신정려를 명하여 현충사에 배향했다.

- 이요신(李堯臣)

자는 여흠(汝欽)이요, 호는 율리(栗里)이며, 본관은 덕수이니, 풍암(楓巖) 거(據)의 증손으로 퇴계(退溪)의 문인이다.

뜻이 돈독하고 학문에 힘쓰며, 자기 자신에 대한 계율을 매우 엄격하게 하였다. 선조때에 사마에 올랐으며, 퇴계선생을 주자의 백록동부를 써 주면서 격려해 주었다.

- 이용현(李容鉉)

자는 용구(用九)요, 호는 반계(盤溪)이며, 유현(儒賢) 간(柬)의 증손이다. 벼슬을 경연 특진관을 지냈고, 신미년의 홍경래 반란을 당하여 그의 아버지가 총관으로서 정주에 출진하였는데 정주성이 함락되자, 선전관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몸을 던져 천리를 달려가 적도들의 목을 베었다. 반란이 평정된 후에 순무영으로부터 포상을 품계하여, 공신의 녹권을 내려 표창했다.

- 이유신(李禹臣)

본관은 덕수이며, 충무공 순신(舜臣)의 아우인데 음사로 참봉을 지냈다.

- 이은빈(李閔彬)

자는 사질(士質)이요, 본관은 덕수이며,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인데, 병사(兵使) 건수(建秀)의 아들이다. 순조대에 선전관으로 무과 급제하여 전라병사를 지냈다. 부친이 병환이 났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금두꺼비가 약이 된다고 하므로, 겨울에 나가서 금두꺼비를 구하려 올렸더니 효험이 있었다. 효행이 효자 정려를 명했다.

- 이익운(李益運) (1748 ~ 1817)

호는 학록(鶴麓)이며, 정운(鼎運)의 아우이다. 재학과 덕망이 뛰어났고, 행실이 고상하며, 학식이 넓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뛰어난 천성을 지녀, 여덟살 때에 영조 임금께서 불러 보시고 그를 몹시 임금께서 사랑하시어, 굴 두 개를 주시면서 시를 지으라고 운자를 불렀다. 그는 즉석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橘自江南至	귤이 강남에서 이르르니
秋色滿官香	가을빛이 궁중에 가득하여 향기롭구나
聖人親手賜	성인께서 친히 손으로 주신 이것을
歸獻我爺孃	돌아가, 내어버이에게 바치리.

정조 때에 문과 급제하여 인조판서를 지내고 시호를 정숙이라 했다.

- 이익태(李益泰)

자는 대유(大裕)요, 호는 야계(冶溪)이며, 본관은 연안이니, 만오당(晩悟堂) 돈형(惇亨)의 아들이다. 현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이조좌랑, 교리, 수찬을 역임하고, 숙종때에 호당에 선발되었으며, 여덟 고을의 수령을 지냈다.

송우암과 김문곡을 위하여 신원소를 올렸다가 임실땅으로 유배되었으며, 송우암이 사사되자 힘을 다하여 호송하는 일을 도왔다.

- 이인양(李寅陽)

자는 승여(升汝)요, 호는 산수재(山水齋)이며, 본관은 전주이니, 강옹(江翁) 태연(泰淵)의 아들이다. 임전재의 문인으로 효도하고, 우애하며, 학문과 행실이 뛰어나 사우들이 추대하여 중히 여겼으며 조정에 천거되었다. 유고가 남아있다.

- 이인충(李仁忠)

자는 회지(誨之)요, 본관은 연안이며, 형조판서 귀산(貴山)의 증손이다. 세조때에 문과 급제하여 부승지를 지냈고, 윤필상의 종사관이 되어 함경도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애를 격파하여 적개원종공신에 책록 되었으며, 청백리로 이름이 알려졌다.

- 이장현(李章鉉)

자는 돈오(惇五)요, 호는 초은(樵隱)이며, 유현(儒賢) 간(柬)의 증손이다. 실학에 잠심하여 가정에 전습하였고, 문장과 학문으로 고을의 천거를 받아 늦게 송화현감에 제수 되었으나, 도리어 즉시 인수를 풀어놓고 청백을 스스로 지켜 냉담하였다. 효도하고, 우애하며, 덕행이 뛰어나 선비와 벗들이 존중하여 추대하였다.

- 이정렬(李貞烈)

자는 군서(君瑞)이요, 호는 퇴호(退湖)이며, 본관은 예안이니, 유현(儒賢) 간(柬)의 후손이다. 문과 급제하여 한림, 규장각 직학사를 거쳐 참판에 이르렀다. 고종 황제가 □퇴호□라는 호를 내렸으며 영친왕으로 하여금 글씨를 써서 주었다. 신축년(1901년)에 국사가 그릇 되어감을 보고 직언으로 극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여 관을 벗어 걸어놓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당년 34세였다.

- 이정운(李鼎運)

호는 오사(五沙)요, 본관은 연안이니, 부사(府使) 상민(尙閔)의 후손이다. 정조때에 문과 급제하여 형조판서를 지냈고, 문장과 절의, 높은 행실이 당세 제일이라는 명성을 들었다.

- 이조망(李朝望)

자는 망지(望之)요, 본관은 연안이며, 야계(冶溪) 익태(益泰)의 손자이다. 영조때에 문과 급제하여 정언을 지냈다. 묘는 둔포면 신흥리에 있다.

- 이종덕(李鍾惠)

자는 회수(晦授)요, 호는 창백헌(蒼白軒)이며, 본관은 완산이니, 쌍호당(雙壺堂) 단석(端錫)의 후손이다. 홍매헌의 문인으로 학문과 경술이 선비들의 추대를 받았으며, 전제 임원회와 도의로 교제하였다.

- 이지함(李之菡) (1517 ~ 1578)

자는 형중(馨仲)이요, 호는 토정(土亭)이며, 본관은 한산이니, 문열공(文烈公) 여(與)의 후손이다. 학행으로 이조참의에 추증되었고, 고종때에 효행으로 효자정려를 명했다. 유고가 있으며 영중추부사 송근수가 묘갈문을 지었다.

- 이필춘(李秘春)

본관은 전주이며, 강양군(江陽君) 요의 후손인데 진사에 급제했다.

- 이한술(李漢述)

본관은 덕수이며, 충무공 순신(舜臣)의 후손인데 진사에 급제했다.

- 이한일(李漢一)

본관은 덕수이며, 유일(遺逸) 요신(堯臣)의 후손이다. 문과 급제하여 시간을 지냈다.

- 이홍무(李弘茂) (? ~ 1728)

자는 자장(子長)이요, 본관은 덕수이며, 순신(舜臣)의 현손이요, 덕은군(德恩君) 광윤(光胤)의 아들이다.

영조 무신년(1728년) 조카 봉상의 청주임소에 가 있다가 이인좌의 반란을 당하여 역도에게 잡혔으나,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죽음을 당했다. 이조판서를 추증하고, 충신정례를 명하였으며, 시호를 충숙이라 했다.

묘는 음봉면 산정리에 있는데, 우의정 산정리에 있는데, 우의정 남공철이 비갈문을 지었다.

- 임공렬(任公烈)

자는 성무(聖武)요, 호는 흠재(欽齋)이며, 본관은 풍천이니, 효정공(孝貞公) 홍망(弘望)의 후손으로서 전간재(田艮齋)의 문인이다. 효행이 특별히 뛰어났고, 기개와 지조가 있어, 을사보호조약에 항거하는 상소문을 올렸고, 경술년(1910년) 한·일합병 후에 일본 정부에서 주는 은사금을 거절했다. □오륜행실록□□만고감□, □훈몽격언□등의 저서와 유집을 남겼다.

- 임 기(任琦)

자는 치규(雉圭)요, 호는 성암(醒菴)이며, 보노간은 풍천이니, 퇴휴(退休) 내신의 아들이다.

선조때에 진사가 되고, 임진왜란에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웠다. 선무 원종 공신에 책록되고 현감에 특배되었으며, 승지에 추증되었다.

- 임내신(任內臣) (1512 ~ ?)

자는 조원(調元)이요, 호는 퇴휴(退休)이며 본관은 풍천이니, 현감 주(柱)의 아들이다. 인조때에 문과 급제하여 한림 사인을 지내고 호당에 선발되어 강원도 감사에 이르렀다. 곧은 절개가 있었고, 을사사회의 명현이 되었다.

- 임순지(任順之)

본관은 풍천이며, 감사(監司) 내신(內臣)의 손자인데, 음사로 군사를 지냈다.

- 임징하(任徵夏)

자는 성능(聖能)이요, 호는 서재(西齋)이며, 본관은 풍천이니, 명신 홍망(弘望)의 후손이다. 숙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장령이 되었고, 영종때에 신임의리로써 만언소를 올렸으며, 경술년(1730년)에 화를 입었다. 이조판서를 추증하고 시로는 충현이며 문집이 있다. 독성사에 배향했다.

- 임 창(任敞)

자은 회이(晦而)요, 호는 강개옹(慷慨翁)이며, 본관은 풍천(豐川)이니, 퇴휴당(退休堂) 내신(內臣)의 후손이다.

숙종 경오년(1690년)에 인현왕후 민씨를 복위 시키고자 통곡하면서 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경종 계묘년(1723년)에 화를 입었다. 독성사에 배향했다.

- 임태춘(任泰春) (1751 ~ ?)

자는 자인(子仁)이요, 호는 농옹(叢翁)이며, 명신(名臣) 홍망(弘望)의 후손이다. 순조때에 효행으로 효자 정려(旌閭)를 명하고, 이조참판을 증직했다. 문집이 있다.

- 임헌회(任憲晦) (1811 ~ 1876)

자는 명광(明光)이요, 본관은 전제(全霽)이며, 본관은 풍천이니, 죽실(竹室) 홍망(弘望)의 후손이며, 매산(梅山)의 문인이다. 철종때에 은일(隱逸)로서 찬선(贊善)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 임 형(任炯)

자는 중형이요, 본관은 풍천이며, 죽실(竹室) 홍망(弘望)의 아들이다. 숙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집의를 지냈다. 어려서부터 얼굴빛이 남달이 온화 표정으로 정성과 예의를 극진히 했고, 법도와 윤리를 지켜 힘을 다해 간사한 무리를 배척했다. 매산 홍직필이 묘지를 지었다.

- 임홍망(任弘望) (1635 ~ 1715)

자는 덕장(德章)이요, 호는 죽실(竹室)이며, 본관은 풍천이니, 명환(名宦) 내신의 현손이며, 참찬(參贊) 환(煥)의 아들이다. 현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지중추부사가 되고, 호당에 들어갔으며 기사에 들었다. 시호는 효정이며, 문정으로 명성을 떨쳤고 문집이 남아있다. 묘는 엄치면 독정촌 뒤에 있는데, 미호 기원행이 묘갈문을 지었다.

- 임희지(任羲之)

자는 일소(逸少)요, 본관은 풍천이며, 퇴휴당(退休堂) 내신의 손자이다. 광해군때에 문과 급제하여 벼슬이 사예에 이르렀으나, 인목대비를 폐비하고자 하므로, 벼슬을 버리고 참여하지 않았다. 이조참판을 추증했다.

- 임희철(任熙喆)

자는 원집(元集)이요, 호는 탄은(灘隱)이며, 본관은 장흥이니, 분무공신 옥의 후손이다. 일찍이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조모의 품에서 자랐다. 천성이 효성스러워 맛있는 음식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공양했다. 조모의 병환에 대변에 맛을 보면서 복두칠성을 우러러 빌었다. 병환이 위급해지자 손가락을 끊어 피를 입어 흘려 넣어서 소생 시켰으나 3일만에 운명했다. 장례와 제례를 예법에 따라 치렀으며 이 사실을 향유와 도백이 천거했다.

- 임달운(任達運)

자는 대규요, 본관은 평택이며, 학행(學行)으로 유명한 수겸(守謙)의 후손이다. 천성이 효도스럽고, 우애하였으며 모친이 이질에 걸려 위중하므로 울면서 대변의 맛을 보았고, 얼음을 깨어 물고기를 구해다 드렸다. 병환이 매우 위독하므로 손가락을 끊어 피를 흘려 넣어 소생시켰으나 3일만에 운명했다. 슬픔에 과하여 건강을 손상했으며, 예법을 너무 극진히 하였다. 향유와 도백이 이 사실을 천거했다.

- 임상언(林商彦)

자는 광중(光中)이요, 호는 도산(道山)이며, 본관은 평택이니 매헌(梅軒) 석주(錫周)의 손자이다. 문장과 학문이 고명하고 시부를 잘 했다. 영조때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의 벼슬을 했으며, 91세의 장수를 했다.

- 임석주(林錫周)

자는 몽뇌(夢□)요, 호는 매헌(梅軒)이며, 학행으로 유명한 수겸(守謙)의 후손으로 표저(漂渚) 조익(趙翼)의 문인이다. 문장과 학문이 뛰어나 교관으로 천거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인조 초기에 우계와 율곡 두 선생에 대한 문묘 종향을 앞장서서 제의하여 모든 선비들이 이에 승복하였으며, 학문으로 재량에 천거되었으나 덕을 감추고 나아가지 않았다.

- 임수겸(林守謙)

자는 익지(益之)요, 호는 갈곡(葛谷)이며, 본관은 평택이니, 전객령(典客令) 세춘(世春)의 후손이다. 직학(直學) 김종리(金從理)의 문인으로 세종때에 진사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성균관의 사성을 지내고, 전라감사를 거쳐 부제학에 이르렀다.

세조대왕의 부름을 받고 편전에서 치국의 도리를 강론했다.

- 정광필(鄭光弼)

자는 사훈(士勳)이요, 호는 수부(守夫)이니, 난종(蘭宗)의 아들이다. 성종때에 진사에 올라 문과 급제하여 영의정이 되고 궐장을 하사받았다. 시호는 문익이라 하고, 중종 묘정에 배식했으며 승헌서원에 배향했다.

묘는 광주에 있고, 후손 동평위 재륜이 찬 한비같이 남아 있다.

- 정난중(鄭蘭宗) (1433 ~ 1489)

자는 국형(國馨)이요, 호는 허백당(虛白堂)이며, 본관은 동래이니, 명환(名宦) 사(賜)의 아들이다. 세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한림 학사가 되고, 호당에 들어갔으며, 좌리 공신이 되어 동래

부원군으로 봉함을 받았다. 벼슬을 이조판서에 이르고,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를 익혜라 했다.

- 정덕호(鄭德好)

자는 치관(致寬)이요, 호는 취송(翠松)이며, 본관은 온양이니 이조판서 포(嘯)의 후손이다. 문장과 행실이 절개가 뛰어났으며, 80세의 장수를 했고, 벼슬은 동돈녕을 지냈다.

- 정 도(鄭道)

자는 이지(履之)요, 본관은 해주이며, 송재(松齋) 문영(文英)의 아들이다. 광해군 때에 문과 급제하여 옹교, 사헌부 집의를 지냈다.

- 정두경(鄭斗卿) (1597 ~ 1673)

호는 동명(東冥)이다. 문과 급제하여 참판에 올랐으며, 팔 문장의 한 사람이다.

- 정 사(鄭賜) (1400 ~ 1453)

본관은 동래이며, 이조판서에 추증된 삼수정(三樹亭) 구령의 아들이다. 세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직제학이 되었고, 지조와 절개가 높았으며, 학문과 행실이 뛰어났다.

좌찬성에 추증되고 내산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완당사에 배향되었다.

- 정상신(鄭相臣)

자는 인지(麟之)요, 본관은 온양이며, 이조판서 포(袍)의 후손이다. 양친께 효성을 다하여 받들었으며, 대변을 맞보면서 하늘에 기도하고 아니 간곳이 없이 애를 쓰며 다녔다. 유럽들이 이 사실을 기록하여 올린 글이 축을 이루었다.

- 정 신(鄭信)

사노(私奴)로서 효행이 지극하므로 효자 정례를 세웠다.

- 정 염(鄭□) (1506 ~ 1549)

자는 사결(士潔)이요, 호는 북창(北窓)이며, 본관은 온양이니, 순봉(順鵬)의 아들이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귀신을 통하였을 뿐 아니라, 네 나라 사제의 말과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새의 울음소리를 귀신같이 알아 들었으므로 중국 사람들이 천인, 진인이라 칭찬하였다. 중종때에 진사가 되어 현감을 지내다가 을사사화 이후에는 깊은 곳에 숨어 자취를 감추었다.

- 정준호(鄭俊好)

자는 덕수(德秀)요, 호는 호암(湖岩)이며, 본관은 온양이니, 이조판서 포(袍)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장엄, 단아하며, 덕행과 문장과 연사에 뛰어났다. 효도하고 우애하며 화목하여 이웃 마을에서 모두 칭찬하였다.

- 조래양(趙來陽)

자는 장길(長吉)이요, 호는 도산(道山)이니, 유현(儒賢) 익(翼)의 아들이다. 진사에 급제하였고, 인조때에 병자호란으로 경축년 강화가 성립되자, 벼슬에 뜻이 없어 시골에 내려와 문장과 학문을 닦았다.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 조사수(趙士秀)

자는 계임(季任)이요, 호는 송강(松岡)이며, 본관은 양주이니, 문강공(文剛公) 말생(末生)의 후손이다. 중종때에 이조판서를 거쳐 좌참찬에 이르고, 홍문과 제학, 세자 보양관을 지냈다. 청백리에 선발되고, 시호를 문정이라 했다.

- 조안국(趙安國) (1501 ~ 1573)

자는 국경(國卿)이요, 본관은 풍양이며, 증병조참판 현범(賢範)의 아들이다. 연산군대에 무과 급제하여 여섯 차례나 지방으로 장군이 되어 출진했다. 은대 포장을 지냈으며, 좌찬성을 추증하고, 옥풍군을 봉했다. 증손 좌익정 익이 묘표를 지었다.

- 조 익(趙翼) (1579 ~ 1655)

자는 비경(飛卿)이요, 호는 포저(蒲渚)이며, 본관은 풍양이니, 옥풍군(沃豊君) 안국(安國)의 증손이다. 월정의 문인이며, 학문과 경세제민의 능력이 있었다. 선조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옥당에 벼슬하다가, 광해군의 정치가 혼란할 때에 신창으로 퇴거했다. 인조반정후에 이조의 전랑이 되어 호다어이 들어갔고, 제학을 거쳐 좌의정에 올랐다. 그리고 기로사에 들었으며, 시호는 문효라 하고, 명고서원에 배향되었다.

- 조제홍(趙劑弘)

현감 제민의 아우인데, 무과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 지계취(池繼摧) (? ~ 1636)

자는 태승(泰升) 또는 언숙(彦淑)이라 하고, 호는 표곡(豹谷)이니, 본관은 충주이다. 의재옹기의 후손인데, 인조때에 진무 공신에 책록되어 충성군이 되고, 한성 판윤을 지냈다.

병자호란에 신계의 서목촌에서 순절하여 나라에서는 관원을 파견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

- 지낙림(池洛林)

자는 원서(元瑞)요, 본관은 충주이며, 진사 한기(漢紀)의 아들인데, 무과에 급제하였다.

- 지성복(池性復)

자는 내경(來慶)이요, 본관은 충주이며, 무과 급제자 낙림(洛林)의 아들이다. 수직으로 도정을 지냈다.

- 지성은(池性殷)

자는 경수(敬修)요, 호는 용호(龍湖)이며, 본관은 충주이니, 훈신(勳臣) 표곡(豹谷) 계취(繼灌)의 후손이다. 생원시에 급제했고, 우애가 돈독하여 깨끗한 이름이 알려졌다.

- 지한기(池漢紀)

자는 여량(汝亮)이요, 호는 해관(海觀)이며, 본관은 충주이니, 훈신(勳臣) 계취(繼灌)의 후손이다. 순조때에 진사가 되었고, 문장으로 유명했다.

- 차천로(車天輅) (1556 ~ 1615)

자는 복원(復元)이요, 호는 오산(五山)이며, 본관은 연안이니, 식(軾)이 아들이다. 선조때에 문과 급제하여 벼슬이 첨정에 이르렀다. 문장이 웅장하고 뛰어나서 불세지재라는 칭찬을 들었다.

- 채응복(蔡膺福)

본관은 평강이요, 진사 시경(時鏡)의 자손이다. 진사와 문과에 급제하여 집의를 지냈다.

- 채정하(蔡廷夏)

응복의 조카이다. 문과 급제하여 지돈녕부사를 지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 최익대(崔翼大)

자는 한경(漢慶)이요, 호는 송암(松庵)이며, 본관은 전주이니, 평도공 죽정 유경(有慶)의 후손이며, 참봉 덕영의 아들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덕행이 있었다. 모친의 병환에 제단을 만들고 하늘에 기도하기를 내뉘므로 대신하여 병을 앓게 해 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병환이 위급해지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 넣어 희생시켰으며, 오리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갑자기 새매가 오리를 잡아다가 땅에 떨어뜨리므로, 모친께 잡수시게 하여 효험을 얻었다. 향유와 오백이 천거하여 관부로부터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고, 그가 살고 있는 마랑동을 효자리라고 고쳐 부르게 하였다.

- 하유성(河有成)

효행이 뛰어나, 병조참관을 추증하고, 효자 정려를 명했다.

- 한경록(韓景祿)

자는 중수(仲綬)요, 본관은 청주이며, 영의정에 추증된 승권의 아들이다. 중종의 제2녀의 혜옹주와 혼인하여 청원위가 되었으며, 평소에 깨끗하다는 명성을 들었다. 묘는 양주의 누원에 있다.

- 한광호(韓光浩)

본관은 청주이며, 진사 혁진의 아들인데 진사에 급제했다.

- 한 울(韓嶺)

자는 자첨(子瞻)이요, 호는 송월당(松月堂)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광해군때에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가, 인조때에야 과거에 응시해야 양시에서 모두 장원 급제했다.

벼슬은 한성 서윤을 지냈으며, 병자호란에 순절했다.

- 허 숙(許塾)

자는 경학(景學)이요, 호는 우산(嵎山)이며, 본관은 양천이니, 양천군 형손(亨孫)의 후손이다. 학문이 독실하여 세인의 추종을 받았으며, 유고가 남아있다.

- 홍가신(洪可臣) (1541 ~ 1615)

자는 흥도(興道)요, 호는 만전당(晩全堂)이며, 본관은 남양이니, 익녕부원군 온의 아들이다. 사마로서 학문이 높아, 천거를 받아 대사헌을 거쳐 홍주목사로 나아갔다가 이몽학의 반란을 평정하여 청난공신이 되고 영원군에 봉함을 받았다. 벼슬이 형조판서에 이르러 치사하고, 봉조하를 하였으며, 우의정에 부원군을 추증하고 시호를 문장이라 했다. 인주면 덕암리에 부조묘를 명했다. 묘는 엄치면 대동리 자좌에 있으며, 자명비를 세웠다.

- 홍 숙(洪淑)

자는 순부(純夫)요, 시호는 장희(莊僖)이며, 본관은 남양이니, 동지중추원사 익생의 손자이다. 연산군 2년(1496년)에 문과 급제하여 이조 참의를 지내고 중종때에 정국공신으로 당원군에 봉했다. 예조판서, 좌찬성이 되었으며, 혜정을 베풀어 청백리로 유명했다.

- 홍일신(洪日新)

학행(學行) 가신(可臣)의 후손인데, 무과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 홍 절(洪燾)

자는 자고(子高)이며, 학행(學行)으로 유명한 가신(可臣)의 아들인데, 효행이 뛰어났다. 현종 10년(1669년)에 왕이 온양온천에 행행하였다가 효행 사실을 들으시고, 좌랑을 증직했다.

- 황의길(黃義吉)

병자호란(1636년)에 그 어머님 박씨가 물에 뛰어들어가 죽으니, 어머님을 껴안고 함께 익사했다. 효자 정려를 세웠다.